
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
(서면질문)

【홍보정책과장 : 마준오 / 언론지원팀장 : 정영준 / 주무관 : 임기제9급 박현교】

연락처(☎) : 2600-6315

김희동 의원 구정질문 내용

(5) 통·반장 신문 구독료 지원관련 배부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

□ 답변내용 ----- (홍보정책과)

- 통·반장 신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김희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우리 부서에선 시의 주요 정책과 우리구의 주요 사업을 지역주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통·반장에게 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통·반장 신문 배달 현황을 파악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·반장 신문 배부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신문 지국 배달상태 점검, 신문 배달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, 구독 대상자 정보 현행화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통·반장 신문 전반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배부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배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·반장 신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아울러 통·반장 신문 배부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.

배부실태 조사개요

■ 조사기간

- 1차(전화설문): 2022. 7. 7.(목) ~ 8. 3.(수)
- 2차(부재자 2차 조사): 2022. 8. 4.(목) ~ 9. 30.(금)
- 3차(신문지국 배달사고 확인): 2022. 10. 3.(월) ~ 11. 30.(수)

■ 조사대상: 2022년도 통·반장 일간신문 구독 대상자 전원(2,373명)

■ 조사결과

○ 통·반장 신문 만족도 관련

- 신문 구독 대상자 총 2,373명 중 1,985명이 응답하여 83.6%의 응답률을 보임.
- 조사결과, '만족한다' (82.3%, 1,633명), '일부 만족' (10.9%, 217명)을 합친 응답자의 93.2%(1,850명)가 통·반장 신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임.
- '불만족'은 6.8%(135명)에 그쳤으며, 사유로는 '현관문 앞 미배달', '우천 시 젖은 신문 수령', '배달사고', '스포츠 신문 선호' 등이 나타남.

○ 통·반장 신문 배달현황 관련

-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세대·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화곡동 지역이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사유로는 이웃 주민이 가져가는 경우, 공동현관 외부인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인한 배달자의 어려움 가중, 배달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수인계 누락 등이 있었음.

○ 조치사항

- 배달 누락 건에 대한 구독대금을 환수함.
- 전 신문지국에 대해 배달사고 예방교육 실시.

[환수내역]

지 국	건수(건)	환수금액(원)	사고지역
화곡지국	11	1,530,000	화곡1동
발산지국	2	162,000	발산1동
강서지국	1	108,000	우장산동
가양지국	1	90,000	가양1동
계	15	1,890,000	